



구일도시

문학자판기



감열지에 글자가 인쇄되는 온도 91°C

구일도시는 평범한 일상에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문학자판기입니다.

긴 글



짧은 글



버튼을 누르면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제주공항, 대구 지하철 외
60여 곳에 문학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국제도서전 2019



별마당 도서관 이벤트



용산 아이파크몰 장구 전시



실패박람회 2019



르누아르-여인의 향기전



국립진주박물관 3.1절 이벤트



KB 평생사랑 콘서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벤트

다양한 전시 및 행사와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1. 문학자판기로 이벤트하기



인기 북튜버 ‘책일찌라(이가희)’님과 교보문고가 함께 마법서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학자판기를 자체 랩핑하여 활용한 사례입니다.
문학자판기를 활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한 문학자판기



대구 지하철역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10개월간 50만건이 넘는 출력 수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매일 문학 작품을 선물하고 있고 용인 경전철도 2년여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도서관, 시민 문화 공간의 필수품이 된 문학 자판기!

사례3. 문학자판기의 변신



문학자판기에는 원하는 글과 이미지를 마음껏 넣을 수 있습니다.
짬구, 스펀지밥, 인기연예인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 공연, 행사 등에서
문학자판기로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
컨텐츠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구일도시
문학자판기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북카페, 도서관, 지하철역 등에 위치한 문학자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 "문학자판기에는 어떤 글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OO출판사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www.shop-example.com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본적으로 1,500편의 문학작품이 들어가며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됩니다.

하단에는 필요한 '홍보문구', '로고',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어디에 설치가 되고 누가 사용하게 되나요?"



사람들이 모이고 기다리는 공간에는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 컨센트 필요



"기대효과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하나

사용자들에게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제공하여 '책 읽는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춤

둘

출력되는 영수증 하단을 통해 공지사항, 기관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

셋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영수증을 통해 사용자들이 SNS로 인증 및 바이럴 홍보

넷

문학자판기 설치를 통해 지역의 문인 및 독립출판 작가 후원과 홍보

“
하루 한 조각, 독서의 시작
”